

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(4.20일 간부회의시)

- 금융위는 올 1월부터 「생산적금융」, 「포용적금융」, 「금융채신」, 「경쟁촉진」의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추진해 왔음
 -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,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,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과거의 금융패러다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변혁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
 - 이와 함께,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,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,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개방이 없었던 금융업권에 대한 금융회사 설립 허용 방침 결정 등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제도개혁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
- 최근 금융혁신,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의를 보면서, 금융당국이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 해야겠다는 판단임
 -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은 그 성과가 성격상 서서히 날 수 밖에 없겠지만,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음
- 라나 포루하가 쓴 ‘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’라는 책을 보면,
 -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, 빚더미만 남기고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음
 -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함

- 따라서,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은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
-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긴급요
- 이러한 취지에서 ‘금융혁신 추진’과 관련하여 금융위 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함

1. 우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새신 과제를 당초 계획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

- **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**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주주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로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진 분야임
 - 금년 정기국회에서 「지배구조법」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
 - 특히, 입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되,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,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람
- **금융그룹 통합감독**은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인 만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과제
 -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, 「통합감독법」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

- **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**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,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나,
 -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
 - 따라서,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·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
- **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**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
 -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이 없게 하되,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'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
- **금융업 진입규제 개편**은 혁신형 금융회사를 금융권에 진입 시킴으로써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
 - 2분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후속조치로서 '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'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,
 - 보험,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이 없이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해 주기 바람
- 코스닥벤처펀드의 수탁고가 1조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임. 자본시장 활성화는 건전한 질서와 이에 기반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

- 회계개혁,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
- 최근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인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, 금감원 검사결과(4월말)를 감안하여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,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
- 금융혁신 체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생활 접점에서 발생하는 **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**하는 것이 매우 중요
 - 투명성·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, 대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,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고,
 -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철저히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

2. 중소기업, 자영업자,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 취약부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

- 중소기업인, 소상공인, 농림어업인 등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 발표한 **연대보증 폐지, 성장지원펀드, 농신보제도 개선**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
 - **동산금융 활성화**도 상반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 창업·성장 생태계 구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
- 특히,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구조조정 협력업체**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는 한편, 추가적인 지원 확대 필요에 대비하여 추경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

3. 금융혁신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 점검과 홍보에 각별히 신경쓸 것

-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 직접 후속조치 등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기 바람
- 5월부터 ‘금융혁신 점검회의’(처장 주재, 금융위 내부)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월 점검하고,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줄 것
-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 및 공개세미나 등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람

4.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

-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,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필요
-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혁신 추진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
- 사무처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(금융위 국장·금감원 부원장보 참석) 등을 통해 위-원간 정보공유,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기 바람